



애브비 소식 > 2018 애브비 소식 > 애브비 소식

애브비 소식

한국애브비,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재인증

December 03, 2018

-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출산 및 양육 지원 등 종합 심사로 선정
- 엄마의 방, 탄력근무제, 패밀리데이 등 가족친화 기업 문화 조성
- 여성 직원 비율은 43%, 여성 임원은 46%에 달해

대한민국 서울, 2018년 12월 3일 - 한국애브비(대표이사 류홍기)가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가족친화기업'으로 재인증 받았다고 3일 밝혔다. 한국애브비는 지난 2013년 가족친화기업으로 신규 선정된 이후 이번 재인증으로 2021년까지 8년 연속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유지하게 된다.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기업'은 일과 가정의 조화를 도모해 직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의 행복과 기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제도를 모범 운영하는 기업을 평가·인증하는 제도다. 기업의 가족 친화 제도 운영 전반, 출산 및 양육 지원, 임직원 만족도, 경영진의 관심과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인증 기간은 3년, 연장 기간은 2년이다.

한국애브비는 직장가 가정생활의 조화로 직원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도입·시행하고 있다. 탄력근무제를 통해 출퇴근 시간 조율이 가능하고, 학업, 육아 등 사유로 사무실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재택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 출산 축하금과 출산 전후 90일 간 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130 여명으로 직원 수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내 임신, 출산 과정을 거치는 여성들을 배려해 모유 유축기, 임산부 의자 등을 구비한 '엄마의 방'을 마련했다.

더불어 매월 둘째 주 금요일을 '애브비 패밀리데이'로 지정, 정규 근로시간을 3시간 앞당겨 오후 3시 퇴근을 독려해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방향을 맞춘 임직원 자녀들을 회사로 초청해 가족과 함께 과학 원리를 배우는 '패밀리 사이언스 데이'와 연말 자녀들과 함께 요리하는 '패밀리 쿠킹 클래스' 등은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적은 애브비의 일하는 엄마·아빠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다. 이러한 다양한 가족친화 제도 운영은 여성 인력 비율에도 영향을 미쳐서 한국애브비의 임원 중 여성 비율은 46%, 직원 중 여성 비율은 43%에 달한다.

한국애브비 류홍기 대표는 "이번 가족친화우수기업 재인증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일과 가정의 조화 속에 직원들이 잠재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업, 애브비

애브비는 6년 연속 워킹마더(Working Mother) 매거진이 선정하는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100대 기업에 선정됐으며, 다이버시티 매거진의 "다이버시티(다양성) 존중 우수 기업"에 5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사이언스(Science)매거진 역시 애브비를 수년 간 과학자들을 위한 최고의 직장으로 선정해 왔다. GPTW(Great Place to Work)과 '포천'誌(FORTUNE)가 선정하는 일하기 좋은 직장으로도 선정되어 왔고, 일하는 엄마 아빠의 삶의 균형을 돕는 육아휴직, 유연근무 등 부모 친화 프로그램으로 2018년도에는 부모가 일하기 좋은 기업(BestWorkplaces for Parents)으로도 선정되기도 했다. 한국애브비는 최근 GPTW Korea가 주관하는 '2018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과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도 선정돼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애브비는 설립 이후, '다우존스 지속 가능경영 지수'에도 연속 편입됐고, 환자단체가 선정하는 2017 Patient View에서 발표하는 제약사 평판 인식 조사 결과 2위(4년 연속)로 선정되었다. 2018 로베코삼 지속가능성 어워드(Robecosam Sustainability Award) 2년 연속 금상 수상, 2018 FTSE4GOOD 인덱스에 환경, 사회, 거버넌스 우수 기업으로 3년 연속 선정, 2018 미국 지역사회 기여하는 우수 기업으로 Civic 50에 5년 연속 선정됐다.



한국에브비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기업'으로 재인증 받았다. 한국에브비는 탄력근무제, 재택근무제, 출산 및 육아 지원, 패밀리데이 등 다양한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아빠, 엄마와 함께 과학 놀이를 하며 미래 과학자 꿈을 키우는 '패밀리 사이언스 데이'(사진)도 임직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